

제6장 현대 일본과 세계

1. 국제 사회로의 복귀

1 민주화를 향하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는 어떻게 해서 민주화가 진행된 것일까.」

연합국군의 점령

1945(쇼와 20)년 8월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많은 도시가 공습을 당하여 살 집도 없고 입는 것과 먹는 것조차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새로운 생활의 건설을 향해 발걸음을 내 던지기 시작하였다 .

같은 해 9월, 일본은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국군에게 점령되었다.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영토는 혼슈, 홋카이도, 시코쿠, 규슈와 그 부근의 소도[小島]들로 제한되고, 대만과 조선 등의 영토를 포기하였다.

맥아더를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국군 총사령부(GHQ)가 도쿄에 설치되었다. 또한 오키나와·아마미·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군정하에 놓여졌다.

사진 1: **항복문서의 조인** 1945년 9월 2일, 요코하마 앞바다의 미국전함 미주리호 위에서 조인식이 이루어졌다.

사진 2: **아쓰기 기지에 내려 선 맥아더 최고사령관**

사진 3: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종전[終戰]** 다음 해부터 도쿄 이치가야의 구[舊] 육군성 건물에서 정치·군사의 최고지도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비군사화[非軍事化] 대책>

일본의 비군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군대는 해산당하고, 전쟁을 지도한 책임자들은 전쟁범죄인[戰爭犯罪人]의 혐의로 극동국제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또한 전쟁협력자가 공직에서 추방되고, 군국주의와 극단적인 국가주의를 주장한 단체도 해산당했다. 한편, 전전[戰前]에 해산한 정당 등이 다시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민주화의 진전

1945년 10월 총사령부는 일본을 민주적인 국가로 새롭게 만들기 위한 지령을 내렸다. 경제면[經濟面]에서는 일본 경제를 지배하며 전쟁과도 깊은 관계를 가졌던 미쓰이[三井]·미쓰비시[三菱]·스미토모[住友] 등의 재벌이 해체되고[財閥解體], 대자본가의 이익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노동분야의 개혁도 진행되었다.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어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노동기준법이 제정되어 8시간 노동제와 남녀동일임금제 등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전국에서 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또한 전국수이헤이사[全國水平社]의 전통을 계승하여 부락해방전국위원회가 만들어져 부락해방운동도 활발해졌다.

농촌에서는 봉건적인 질서 위에 유지되고 있던 지주제를 폐지하고 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이루어졌다. 부재지주[不在地主]는 물론 재촌[在村] 지주도 일정 면적 이상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고, 남는 것은 국가가 매입하여 소작농에게 싸게 매도하였다. 이 결과 소작농의 대부분은 자작농이 되어, 생산의욕이 높아지고 농업 생산은 향상되었다.

일본 사회의 모든 면에서 보여졌던 남녀차별도 철폐되게 되었다. 1945년 12월에 선거법의 개정으로 여성에게 처음으로 참정권이 인정되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사진 4: **암시장에서 죽을 먹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1946년 2월 도쿄도)

사진 5: **불타버린 자리에서의 생활** 집도 물자도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전쟁이 끝났다는 해방감[解放感]이 보여진다. (1945년 도쿄도)

그림 6: **농지개혁 포스터**

「총사령부에 의해 추진된 민주화에 관한 지령을 조사해 보자.」

2 일본국 헌법의 제정

「일본국헌법은 어떠한 특색과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일본국 헌법

1945(쇼와 20)년 10월 총사령부는 일본의 민주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대일본제국헌법의 개정을 정부에 지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작성한 초안[草案]은 이전 헌법의 일부 수정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총사령부는 독자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그 공표를 정부에 지시하였다. 비슷한 때에 정당이나 학자 등도 각자의 초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총사령부의 개정안에 기반하여 정부안을 만들고, 여성도 참가한 전후[戰後] 첫 선거에 의해 성립한 국회가 이것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이 헌법에는 민간의 개혁적인 의견도 반영되었다. 이렇게 대일본제국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민주적인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이 만들어져,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고 이듬해 5월 3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헌법과 가족 제도>

새로운 헌법에서는 **국민주권·기본적 인권의 존중·평화주의**의 3대 원칙이 명문화되고 친황은 국가 및 국민통합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과거의 전쟁에 대한 반성에서 제2장(제9조)에 **전쟁의 방기[放棄]**를 규정하였다. 지방자치제도를 만들고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추진하여, 도도부현[都道府縣]의 지사 등은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가족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던 민법도 개정되어, 이에[家](역주: 동일 호적에 기록된 친족의 집단)와 호주[戶主] 중심의 가족제도와 처를 낮게 위치 지었던 규정이 폐지되고, 부부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재산의 상속도 모든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인정되게 되었다.

그림 1: **일본국헌법의 3대 원칙** 1947년에 문부성(지금의 문부과학성)이 발행한 『새로운 헌법 이야기』의 삽화.

사진 2: **헌법 개정 초안** 총사령부안[總司令部案]에서는 The Emperor는 「황제[皇帝]」, Japanese People은 「일본국 인민[人民]」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정부안에서는 「천황[天皇]」, 「국민[國民]」으로 되었다.

그림 3: **여성 후보자** 1946년 4월에 시행된 중의원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연설을 하고 있다.

교육의 민주화

교육의 측면에서도 큰 개혁이 일어났다. 교육칙어를 배경으로 한 국가주의·군국주의 교육은 폐지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어 내는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일본 교육의 기본을 확립하기 위해 1947년에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이 제정되었다.

교육제도는 6·3·3·4제가 채용되고, 의무교육은 남녀공학으로 소학교가 6년, 새롭게 발족한 중학교가 3년이 되어, 그때까지의 6개년에서 9개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전후[戰後]의 혼란과 가정의 빈곤·질병 등의 이유로 소·중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생도도 많았다. (주 1) 교과서는 국정 제도를 그만두고 민간에서 저작·발행하여 국가의 심사를 받는 검정체도로 바뀌었다.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행하기 위해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교육위원회를 두어져,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선거로 뽑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주 2)

주 1. 1949년의 문부성 조사에 따르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과 생도는 소·중학교에 약 9만 명이 있었다.

주 2. 그후 1956년에 교육위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서 지방자치체[地方自治體]의 장에 의한 임명제로 바뀌었다.

사진 4: **방공호 교실** (1945년 11월) 공습으로 교사[敎舍]가 불타 버려 아이들은 방공호 안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야외에서 행해지는 청공 교실[靑空敎室](역주: 노천 교실)도 있었다.

사진 5: **남녀공학의 실현** 남녀공학이 제도화되어 남자도 가정과를 배우게 되었다.

그림 6: **먹으로 칠해진 교과서** 「병대 놀이」 「우리들은 강하다」 등의 문자가 먹으로 지워져 있다. 이처럼 교과서에서 국가주의·군국주의적인 표현을 지우고 사용했다. (나가노현 구[舊] 가이치[開智]학교 소장)

3 세계의 움직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는 어떻게 변화한 것일까.」

국제연합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 측에서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한 조직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 결과 전쟁이 끝난 1945(쇼와 20)년 10월에 51개국이 참가하여 **국제연합[國際連合]**이 발족되었다.

<국제연합>

본부를 뉴욕에 두고 미국·소련(현재는 러시아)·영국·프랑스·중화민국(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5대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큰 책임과 권한을 가졌다. 평화를 어지럽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유엔군이 이를 저지하기로 하였다.

사진 1: **국제연합빌딩** (뉴욕)

아시아 여러 나라의 독립

대전이 끝나자, 오랫동안 구미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던 아시아 각지에서 독립 운동이 일어나, 인도네시아·필리핀·인도·파키스탄 등이 독립했다. 베트남도 독립을 선언했지만, 프랑스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인도차이나전쟁이라 불리는 길고도 비참한 전쟁이 계속되었다. 조선은 1945년 8월,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지만,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은 미군, 북은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1948년에는 남에 대한민국, 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중국에서는 또다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일어났는데, 공산당은 토지 개혁 등으로 민중의 지지를 얻어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민당군을 격파했다. 그리고 1949년 10월, 마오쩌둥[毛澤東]을 주석[主席]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고,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쳤다.

사진 2: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선언하는 마오쩌둥**

<중동 전쟁>

서아시아의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선주[先住]하고 있던 아랍인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티나에서 건국을 목표로 하는 유대인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었다. (주 1) 1947년의 국제연합 분할 결의에 바탕해서, 다음해 48년에 유대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랍인들의 의향에 반해 건국되자, 이 지역에 사는 아랍인을 지지하는 이집트 등이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나라들 사이에 총 4회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주민들의 대립은, 관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테러와 그에 대한 보복이라는 형태로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 1. 제1차 세계대전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한 영국은, 아랍 나라들의 독립을 인정하는 협정과 팔레스티나에서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인정하는 약속 등을 하였지만, 각기 모순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대립이 심화되었다.

그림 3.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립국과 두 세계 (1970년 경) 왼쪽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분할, 오른쪽은 조선반도(역주: 한반도)의 분할.

차가운 전쟁

자본주의국 안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던 미국은, 1949년에 캐나다와 서유럽 나라들과의 사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군사 동맹을 만들어,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책」을 폈다. 한편 공산주의를 채택한 소련의 영향력 하에 성립한 동유럽 나라들은, 1995년에 바르샤바조약기구라는 군사동맹을 만들었다.

이렇게해서 세계는 미국·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두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주 2) 이것은 「차가운 전쟁」(냉전[冷戰])이라 불렸다.

주 2. 이러한 가운데 독일은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미국이 지원하는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소련이 지원하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으로 독립하였다.

(심화역사 11) 「냉전」의 세계 - 20세기 중반의 세계*

4 국제 사회로의 복귀와 평화 운동

「점령하의 일본은 어떠한 행보를 거쳐 독립을 회복해 갔을까.」

점령 정책의 전환과 조선전쟁

「두 세계」의 대립이 거세지자, 미국은 일본을 공산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총사령부는 1947(쇼와 22)년 2월 1일에 예정되었던 노동자의 전국적인 동맹파업을 중지시키고, 이듬해에는 공무원의 동맹파업권도 금지하여, 그때까지의 민주화 정책을 크게 전환하였다.

「두 세계」의 대립은 아시아에도 이르렀다. 195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조선)이 남진하여 대한민국(한국)과 전쟁(조선전쟁, 역주: 한국전쟁)이 시작되자, 미군(국제연합군) (주 1)은 한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은 북조선을 지원하여 격렬한 전투가 이어졌다. 1953년에 휴전이 되었지만, 이 전쟁 기간 중 일본에 미군 군수품의 생산·수리·수송 주문이 쇄도하여 일본 경제는 호경기(특수[特需] 경기)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경제는 상승 국면이 되었다.

주 1.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국제연합안보장이사회는 소련이 결석한 채 북조선을 침략자로 결정하고, 무력 제압을 위해 국제연합군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국제연합군은 미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지도 1: 조선전쟁의 추이 이 전쟁으로 양국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그 후 부흥에 막대한 부담이 되었다.

사진 3: 특수 경기 미 군용기를 정비하는 공장

일본의 독립 회복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총사령부는, 일본 정부측에 재일 미군의 조선 출동에 수반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찰력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를 받아들여 경찰예비대가 만들어졌다. 미국은 일본을 자본주의 국가군[群]의 일원으로 자립시키고, 자위력을 갖게 하려 했다. 또한 일본도 주권 회복을 바랐기에, 조선전쟁 중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일본과 48개국 사이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인되었다.

평화조약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일미안전보장조약(주 2)을 맺어, 계속해서 미군이 일본에 주류하고, 국내 기지(시설·구역)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인정하였다.

나중에 일본은 대만의 국민당 정부·인도·미얀마와 개별적으로 평화조약을 맺고(주 3), 소련과는 1956년에 일소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영토(북방영토) 문제를 남긴 채, 국교를 회복했다. 이로써 일본은 국제연합 가맹이 인정되어 국제 사회로 복귀하였다.

주 2. 이 조약은 1960년 1월, 일·미 상호 원조를 포함한 군사 동맹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 때문에 개정에 반대하는 「안보 투쟁」이라고 불리는 국민 운동이 일어났다.

주 3.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서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당시)는 조인을 거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으며, 인도·미얀마(당시는 버마)는 출석하지 않았다.

사진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지시마열도[千島列島]·남가라후토[南樺太](역주: 남부 사할린) 등을 포기했다. 또 오키나와[沖繩]·아마미[奄美]·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를 계속해서 미군의 시정하에 두는 데에도 동의했다.

전후의 평화 운동

독립 회복 후의 일본 정부는, 일미안전보장조약 하에 경제 부흥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력 증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은 자위력을 강화하여 경찰예비대를 성장시켜 1954년에 육·해·공으로 이루어지는 **자위대[自衛隊]**를 발족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들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1954년 미국이 태평양의 비키니섬 부근에서 행한 수폭실험[水爆實驗]으로 죽음의 재를 뒤집어쓴 제5 후쿠류마루[第五福龍丸] 사건이 발생하자, 이것을 계기로 **원수폭금지운동 [原水爆禁止運動]**이 일어났다. 이것은 세계 사람들에게서 지지를 받아 국제적인 운동으로 고조되어, 1955년에 히로시마[廣島]에서 제1회 원수폭금지 세계대회[原水爆禁止世界大會]가 열렸다.

사진 4: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제1회) 제5 후쿠류마루 사건을 계기로, 도쿄도

스기나미구[杉並區] 주부들의 호소로 대략 1년 동안에 일본에서 3000만 명을 넘는 원수폭금지 서명이 모아져, 세계 여론을 움직였다. (1955년 8월 6일, 히로시마시)

사진 5: **안보 투쟁** 일본 국내에서는 안보 조약에 의해 일본이 전쟁에 휘말려든다는 위기감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움직임도 가세해, 안보 투쟁은 국민의 폭넓은 운동이 되었다. (1960년 6월, 도쿄)

2. 일본 경제의 성장

1 고도경제성장과 그 후의 일본

「고도경제성장은 일본에 무엇을 가져 온 것일까.」

고도경제성장과 기술혁신

조선전쟁에 의한 특수경기[特需景氣]를 계기로, 일본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술혁신에 의해 공장은 오토메이션화 되고, 에너지원도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어, 철강·조선·자동차·전기 제품·석유 화학 등의 산업이 현저하게 발전하였다. (**고도경제성장**) 1964년(쇼와 39)년 이후에는 고속도로와 신칸센[新幹線]의 영업 개시 등 수송망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해에 도쿄에서 국제 올림픽대회가 열려, 국민 생활의 풍요로움이 내외에 널리 알려졌다.

1968년에는 국민총생산(주 1)이 자본주의국 중에서 미국에 이어 제2위가 되었다. 이러한 공업의 발전에 수반하여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게 되고, 농산촌[農山村]으로부터 청년 등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에서는 인구의 과밀화가 발생하였지만, 농산촌에서는 인구가 크게 감소해 과소화[過疎化]가 진행되었다.

주 1: GNP. 국내에 있어서의 연간 총생산액에서 원재료비를 뺀 것.

사진 1: 석유콤비나트 일본의 경제 발전을 떠받친 석유화학공업이지만, 배연[排煙]은 공해병 등의 원인도 되었다.

사진 2: 도카이도 신칸센[東海道新幹線]의 개통 (1964년 10월)

사진 3: 올림픽 도쿄대회 1964년 10월 10일, 94개국이 참가해 열렸다. 사진은 24일 폐회식에서의 일본 선수단. 도쿄국립경기장.

사진 4: 석유 위기 이른바 광란물가[狂亂物價]와 물건 부족이 국민 생활을 혼란시켜, 경제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되었다. 물건 부족으로, 화장지를 구해 슈퍼마켓 매장에 쇄도하는 사람들.

<국민 생활의 변화>

만화 「사자에상」은 지금도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신문에 연재되고 있던 4컷 만화로 1946년부터 74년까지 28년간 연재되었습니다. 전후 부흥기 로부터 고도경제성장 시기를 독자와 함께 걸어 온 것입니다. 그 안의 한 장면 한 장면에는, 일본인의 귀중한 생활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정전화제품[家庭電化製品] 보급 그래프와 비교해서 시대 모습을 생각해 보자.

도표: 가정전화제품의 보급

그림: 1970(쇼와 45)년 계재 전화제품을 사용한 식사 만들기.

그림: 1950(쇼와 25)년 계재 장작으로 밥을 짓는 사자에상.

공해의 발생

공업의 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은 국토의 난개발[亂開發]을 초래해, 각지에서 공해와 자연파괴를 가져왔다. 오키카치[四日市] 천식·미나마타병[水俣病]·이타이이타이병과 같은 공해병도 발생해, 주민운동과 피해자·주민으로부터의 소송도 발생하였다. 공해재판에서는 주민의 승소가 잇달았지만 공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공해병에 수반한 보상 문제 등은 유보되었다. 정부는 공해대책기본법 제정과 환경청 설치 등으로 공해·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에 착수하였다.

국제 협력

1973년의 제4차 중동전쟁에 의한 석유위기는 일본경제를 직격하여(주 2)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은 이 해로 끝났다. 일본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수출을 늘림으로써 극복하였으나, 일본의 수출 확대에 의해 미국과 서유럽 나라들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무역적자로 되어 일본과의 사이에 무역마찰이 발생하였다. (주 3)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국제협조와 국제공헌을 세계의 나라들로부터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공업제품 등의 수입자유화와 시장의 자유화를 실시하고, 경제원조도 세계적으로 손꼽힐 정도가 되었다.

주 2. 아랍 산유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등으로의 원유수출을 줄이고 또한 그 가격을 크게 인상했기 때문에, 각국은 석유위기(석유쇼크)라 불리는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

주 3. 이러한 세계경제의 혼란을 해결하고 세계경제의 질서 회복을 목표로, 선진국 수뇌회의(서미트)가 열리게 되었다.

2 일본과 국제 사회의 변화

「최근의 일본과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해, 그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자.」

오키나와의 복귀

오키나와[沖繩]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후에도 미국의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전략 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고, 군사 기지를 위해 토지가 수용되어 있었다. 미국이 개입한 베트남전쟁에서 오키나와 기지가 사용된 것은, 그때까지의 오키나와현민[沖繩縣民]의 토지반환 요구운동을 고조시켜 조국복귀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오키나와 반환 약속을 받아, 1972년 5월에 시정권[施政權]이 일본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기지는 거의 그대로 남아, 일부는 자위대도 사용하고 있다. 군사 기지에 수반된 문제와 불안은 오늘날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진 1: 오키나와 조국복귀운동 (1966년)

지도 2: 오키나와의 군사 기지 오키나와 본도[本島] 약 20%의 면적을 점하고 있다. (『방위 백서』 등)

일중 국교 정상화

중화인민공화국은 1971년의 국제연합 총회에서 국민당 정부(대만)를 대신하여 국제연합에서의 대표권을 인정받았다. 이듬해에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일본 수상도 방문하여 일중 국교 정상화 공동 성명에 조인하고, 1937년 이래의 양국의 대립 상태는 끝났다. 이후 국민당 정부와의 정치 관계는 단절됐다.

1978년에는 **일중평화우호조약**을 조인하고, 이듬해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국교도 열렸다.

사진 3: 일중평화우호조약 조인식 (1978년 8월)

<조선과의 관계>

1965년, 일본은 대한민국을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서 일한기본조약에 조인했다.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국가로서의 관계도 막혀 있었다. 1991년, 양국의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되었지만, 진전되지 않고 중단되었다. 2002년 9월에 일본 수상이 방조 [訪朝]하여 처음으로 일조 수뇌 회담이 열리고,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이 재개되었다.

냉전의 종결과 변화하는 세계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 개발 등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전쟁, 소련은 아프가니스탄 내란에 개입하는 등 진영의 단속을 꾀하였지만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의 부담만 남았다.

소련에서는 1985년 이래 정치·경제 개혁이 추진되어 1당 독재를 펴 왔던 공산당이 1991년에 해산하였다. 그해 말에 소련은 해체되어 러시아 연방 등의 15개 나라로 나뉘어졌다. 동유럽 나라들에서도 1989년 각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되었다. 11월에는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고 다음해에는 동서독일이 통일되었다.

이처럼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져 두 세계의 대립은 사라지고 세계는 커다란 변혁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는 민족과 종교의 차이 등이 원인이 되어 격렬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2001년 9월, 미국의 각지에서 동시에 대규모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를 냈다. 그 이후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이 중시되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대량파괴병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1950년대에 6개국으로 시작된 구주공동체(EC, 역주: European Community)는 가맹국을 늘려, 1993년 마스트리흐트조약의 발효에 따라 구주연합(EU, 역주: European Union)으로 발전하였다. 2002년부터 15개의 가맹국 중 12개국에서 공동통화인 유로(역주: Euro)의 유통이 시작되어 통화통합[通貨統合]이 실현되었다. 2004년에는 체코와 폴란드 등의 10개국이 가맹하였다.

사진 4: 철거되는 베를린 장벽 냉전의 영향으로 동서로 갈라졌던 베를린은 장벽에 의해 통행도 금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동유럽 나라들의 변혁이 진행되어 1989년 11월에 장벽이 개방되고 독일 통일을 향해 나아갔다.

사진 5: 무너져 내리는 초고층 빌딩 2001년 9월 11일, 하이잭 당한 민간 여객기가 미국 국방부 빌딩과 초고층 상업빌딩에 돌진하여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이 당시 다발 테러사건에 대해, 미국은 테러조직의 근거지로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였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탄에 신정권이 만들어졌다.

(심화역사 12) 「냉전」 후의 세계와 그 과제 - 21세기 세계

3 세계와 일본의 과제

「21세기에 남겨져 있는 세계와 일본의 과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세계의 과제

사진 1: 해외에서 활약하는 일본인 청년 해외협력대원

학습지도 (짐바브웨)

학습지도 (방글라데시)

농업지도 (라오스)

인류는 20세기에 두 번의 큰 대전과 냉전을 시작으로 한 격한 대립의 시대를 경험하였다. 하지만 제국주의와 파시즘에 의한 전쟁, 나라의 형태에 대한 사상의 차이에 따른 대립 등의 세계 구조는, 20세기 말까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의 붕괴와 냉전의 종결에 의해 크게 바뀌었다. 21세기가 된 지금, 세계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냉전의 종결에 따라 세계가 휘말리는 것과 같은 큰 전쟁의 위기는 사라졌다. 유럽연합(EU)과 같이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피하여 국경을 없애려는 움직임도 있다. 또한 국제화와 정보화의 진전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해 사람들의 교류와 무역이 활발해지고, 세계 각국의 연대는 강해져서 국제적 공생과 협조가 진행되고 있다. 보더리스(Borderless)라 불리는 것처럼, 각 나라의 국경이라는 울타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전쟁이 없는 세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그 한편으로 동유럽, 서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는 민족이나 종교의 차이에 의한 지역적 민족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또한 새롭게 핵무기를 보유하는 나라가 출현하고(주 1), 국제적인 테러사건도 세계 각처에서 다발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의 발달 등에 의해 자원·에너지가 대량으로 소비된 결과, 온난화와 산성비와 같이 지구의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게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구환경을 보전하여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주 1. 1998년에는 인도·파키스탄이 새롭게 핵실험을 하였다. 2005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의 보유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과제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반세기 이상이 지나,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국민 의식이 확립되었다. 헌법에 보장된 남녀평등은 1985년에 여성차별철폐조약이 일본에서도 비준되고, 1999년에 남녀공동참획[參劃]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더욱 진전되었다.

그러나 인권을 다테마에([たてまへ], 역주: 표면상의 원칙)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근년에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에서 타인의 고통이나 권리를 돌아보지 않는 풍조도 있다.

동화[同和] 문제의 해결은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이자 국민적 과제로, 오랜 기간의 부락 해방 운동의 발전을 기초로 하면서, 1965년 동화대책심의회 답신을 받아 생활

개선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차별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부락 차별은 결혼이나 취직의 기회 균등 등 시민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데 있다.

이 일본 고유의 인권 문제인 부락 차별 해소에 대한 대처를 초석으로, 실생활에 남겨진 성차별을 없앴과 동시에, 심신 장애인이나 고령자, 재일 외국인 등의 사람들이 풍요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일 한국·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역사의 바른 인식에 근거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아이누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지만, 편견을 없애고 소수 민족 고유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 획득의 역사이며, 21세기는 인권과 공생의 세기라고 부르지만, 일본 국내에도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이들 과제의 해결을 통해 참된 민주 국가를 만들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학습을 정리하자*

학습 마지막에*